

# 누그러진 코로나, 확산 변수 수두룩

### 일주일 연속 한 자릿수 감염... 이달만 171명 확진 일상생활 주변 침투에 '변이 바이러스' 만연 확인 16일 기준 7개교 확진자 접촉으로 원격수업 전환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하며 급속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많아 방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 6명(1208~1213번)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13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17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이달 초 연일 두자릿수 확진세를 보이다 지난 10일부터 한 풀 꺾여 7일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명꼴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66으로 1 이하로 떨어졌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6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전체의 21%(37명)를 차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날 양성으로 확인된 6명 가운데 2명(1208·1209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1210·1211번)은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 나머지 2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210·1211번만 타 지역 거주자로 지난 14일과 13일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10번은 현재 제주를 떠나 김포시에 체류중이지만 제주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도내 확진자로 분류됐다. 1211번은 부천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86명, 도내 가용 병상은 257병상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16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4곳이 전체 또는 부분 원격수업으로 추가 전환됐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련초병설유치원과 제주엔젤유치원, 전원유치원(전체 원아 대상)과 남광초(1·2학년 대상)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합천초, 대기고, 구좌중앙초(병설유치원 포함) 등 3개교가 기존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이날 기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는 모두 7개교다. 오은지·이상민기자

## “제주교육정책 방향 도민들 의견 듣는다” 16~21일 여론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교육정책 및 제주미래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16일부터 21일 까지 6일간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교육청이(주)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500명)과 ARS(자동 응답시스템, 300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교육정책 조사와 제주미래교육비전 수립 의견 조사 등 두가지 분야로 실시된다.

제주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 교육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제주도교육청 지원 평가 및 주요 관심 정책 등의 질문을 통해 제주교육이 나아가 갈 방향을 찾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해안도로까지 점령한 들개들 16일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에 야생화 된 유기견 무리가 나타나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여직원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실형

제주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있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을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 “합덕 블록공장 사업 취소하라”

제주시 합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청은 합덕 블록공장 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이날 “제주시는 지난 2017년 9월 합덕리 블록공장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해당 업체가 하루에 시멘트를 2.3kg만 사용하겠다는 거짓이었다. 현재 시멘트 하루 사용량을 16.8t으로 공장등록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 ■ 도민들에게 ‘자치경찰 중점 사무’ 물었더니 “치안 서비스 향상·교통단속 역점”

### 자치경찰위 어제 토론회

도민 대다수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자치경찰 사무로 치안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 단속 등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자치경찰제, 그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도민 의견을 자치경찰위원회 비전과 목표 수립에 반영할 목적으로 지난 2~8일 153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자치경찰 사무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인 전체 47%가 치안 영역 확대를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꼽았다. 이밖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무질서 단

속 강화(31%), 자치경찰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10%), 수사력 보강을 통한 사회적 이슈 사건 신속 대응(9%) 등의 의견이 나왔다.

도민들이 관심 갖는 경찰 사무 분야(복수 답변 가능)는 생활 치안 활동(39%), 교통안전 활동(33%),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목표와 비전 수립을 위한 핵심 가치 키워드로 ‘도민 안전’, ‘가까이에서’, ‘둔둔한’, ‘이웃처럼’, ‘현장 치안 구현’ 등이 제시됐다.

이날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제시한 자치경찰의 핵심 가치 키워드가 ‘도민 안전’과 ‘가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국토부 결정에 경악” 2공항반대단체 국회앞 회견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의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다”며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철회했어야 했지만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불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



국토부에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주체들이 앞장서서 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 “영향평가 즉각 동의” 찬성단체 환경부 찾아 집회

제주제2공항건설추진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 등 제2공항 찬성단체는 16일 제주시 정부청사 환경부 후문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문제가 결부된 제주제2공항을 왜 이렇게 차별로, 등한시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산지역 주민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재산권의 제약을 감수하더라도 성산에 제2공항을 유치해 서귀포시와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해 왔다”면서 “이러한 성산지역 주민의 희생과 인내를 내팽개치고 정당하게 진행된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면 더 큰 저항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은범기자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승사: 전희상명 → 교육신청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r.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정전기식 수도배관 녹물경고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